

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(오대산) 촉구 결 의 문

지난 8월 10일 “간 나오토” 일본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한 담화문을 통해 오대산사고에서 불법반출한 『조선왕실의궤』를 비롯한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.

우리 평창군의회는 이번 일본총리의 담화문이 한일합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“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”를 위해 내린 용기있는 결단이란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.

이러한 성과는 지난 4년간 『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』의 수호사찰인 월정사를 비롯한 각계에서 노력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하며 이에 5만 평창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.

이번에 반환되는 『조선왕실의궤』 중 일본 궁내청에 소장되어 있는 오대산 사고본 41종 또한 『조선왕조실록』과 마찬가지로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조선총독부에 불법반출된 것으로 일본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같이 『조선왕실의궤』의 조속한 환국을 간절히 바라며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본래의 가치가 빛나듯 원소장처인 오대산사고로 돌아오길 촉구한다.

무엇보다 지난 2006년도 7월 도쿄대학으로부터 반환된 『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』에 대해 문화재청은 3년간 디지털작업, 연구조사, 영인본 제작 등을 이유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임시보관하고 3년 후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

“문화관광부 장관의 오대산 보관 답변”과 “문화재청장의 전시관 건립 약속”등이 조속히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.

또한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소유욕에 앞선 실록책자에 대한 **“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지인”** 불법 날인행위에 대해 5만 군민과 함께 규탄하며 평창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1 『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』에 대한 조속한 소장처 결정을 문화재청에 요구하기로 한다.

2 『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』에 대한 현황과 당초 임시 보관 목적인 3년간의 연구실적, 영인본 제작, 디지털현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울대학교에 요구하기로 한다.

3 『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』 훼손행위(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지인 날인)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문화재청에 요구하며 조치가 없을 경우 평창군의회가 직접 책임을 묻기로 한다.

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국보인 『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』이 우리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오대산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노력할 것을 5만군민과 함께 결의한다.

2010. 9. 28

평창군의회 의원일동